

유명 화가 작품 사고 어려운 환자들 돕고

전남대병원 CNUH 갤러리 의료소외계층 돕기 기증작 전시 작품 30만원~100만원에 판매

최근 지인의 결혼이나 생일 때 그림을 선물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특정한 들만 그림을 산다는 인식이 바뀌며 자신의 만족과 시각적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은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지역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의료소외계층 돕기 유명화가 기증 작품 특별전을 CNUH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오는 31일까지 '나눔과 배려, 사랑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3년간 CNUH 갤러리 초대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작가들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돕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획됐다. 지난해 11월 갤러리 전시작품 모음집 발간을 계기로 모인 작가들 사이에서 환자들을 돕자는 의견이 나왔고 작품 기증 의사를 병원 측에 전달했다.

참여 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박동신·조숙·김희남·이혜경·김효삼·박정용·차숙자·장원석·권하주·고정희·김혜숙·기영숙·정상섭·곽미녀·김종국·한임수·전병문·백현호·김해성·손영선·장안순·변경삼·김화은·이선희·류현자·홍정호·장용림·문정호 등 28명이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손영선 작가는 초록빛 숲 너머로 파란 바다가 돋보이는 '남해 해경'을 기증했다. 이혜경 작가의 작품 '목화솜 사랑'은 노란 배경을 바탕으로 줄기에 매달린 포근한 목화솜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한임수 작가의 '붉은 깃발'은 자줏빛 깃발과 회색빛 하늘을 통해 색의 대비를 보여주는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의 판매 가격은 크기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1호(역사 1장 크기)



11일 전남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 위치한 CNUH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의료소외계층 돕기 유명화가 기증 작품 특별전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혜경 작 '목화솜 사랑'

당 3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판매 수익금은 병원내 봉사단체 '학마를 봉사회'의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 2002년 발족한 '학마를 봉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상섭 작가는 "병원에서 전시를 하며 어려운 환자들이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작품이어나마 돕게 되어서 기쁘다"며 "환자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참여소감을 말했다.



손영선 작 '남해 해경'

병원 관계자는 "작가들이 기증작품 특별전에 가까이 동참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전시를 통해 환

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명화가 작품전과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의 062-220-510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제8기 입주작가

왼쪽부터 표인부, 조정태, 장미란, 엄기준.

조정태·표인부·엄기준·장미란씨 선정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중국 북경창작센터 제8기 입주작가에 조정태(회화), 표인부(평면입체), 엄기준(회화), 장미란(회화)씨가 선정됐다. 작가들은 지난 8일 입주해 1년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오는 12월까지 창작활동은 물론 오픈스튜디오(5월), 798예술특구 발표전(11월)을 비롯해 평론가 간담회, 국제기획전, 개인전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정태씨는 518민중항쟁 특별전, 오월전 등을 기획했으며 광주민예총, 광주민미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인부씨는 제9회 신세계미술제 장려상, 광주미술상 차석상 등 수상했고, 중국 남경예술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엄기준씨는 제17회 신세계미술제 신

진작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지노 갤러리·무각사 로터스갤러리 공모작가에 선정됐다. 장미란씨는 북경 중앙미술학원 석사 졸업·조선대 대학원 미술학박사를 수료했고 북경재중한국예술 문화인 미술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중국 북경 조양구 파산즈 환타에 예술지우에서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일근, 김진화, 김해성, 전현숙, 조강현 등 1기 작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7기까지 작가 30명을 배출했다. 오는 2월 상륙전시관에서는 제6~7기 입주작가들의 귀국발표전 성격인 '2014-2015 북경결주'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작품감상 하세요 '그대에게 드림 갤러리'13일 개관 ... 강행복 등 10명 전시

경찰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삭막한 이미지다. 특히 지난 1982년 완공된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래된 건물 탓에 어두운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진다.



강행복 작 '명상의 나무'

동부경찰서가 이런 분위기를 바꿔줄 작은 문화공간을 마련했다. 1층 로비와 복도를 이용해 '그대에게 드림 갤러리'를 만들고 13일 개관을 개최한다.

(사)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와의 협약에 따라 만든 갤러리는 지역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상시 전시할 예정이다. 참여작가로는 강행복, 김영화, 문명호, 설상호, 이금주, 이병오, 이정래, 류재용, 최재영, 홍정호 등 10명이다. 작가들은 판화, 서양화, 한국화 등 10여점을 선보인다.

강행복 작가의 판화작품은 단순한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 입체감과 현란한 색상이 특징이다. 김영화 작가의 작품은 마치 그

림지도처럼 여행의 과정을 그렸다. 류재용 작가는 산수유나무를 소재로 삼아 노란색으로 캔버스를 가득 채웠다. 작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어느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견주어도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광주미술협회 관계자는 "갤러리가 경찰서 직원 및 방문객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경찰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06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디지털아카이브 개편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archive.ntok.go.kr)를 개편, 디지털 자료를 확

충하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바꿨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디지

털공연예술자료는 총 7만6000여점으로 늘어났으며 자료 복사 신청 절차는 간소화돼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연예술의 역사와 실체를 보존하고 그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2월 문을 연 공연예술박물관은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예술 녹화영상과 음원, 사진, 대본, 포스터, 프로그램, 무대 디자인 등 22만 여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에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짓눌린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애드립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적 방법을 독심 있게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간 작가의 독심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낙오된 무력한 소시민의 지대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문순태 소설가

- 함정임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8(학동)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이메일 simmian21@harmail.net, munhakdle@harmail.net